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를 위한 훈련혁명의 열풍과 무장장비현대화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고 국방력발전에서 전례없는 자랑찬 성과들이 련발적으로 이룩되어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훈련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훈련은 조선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들의 화력전투능력을 경기진행의 방법으로 판정평가하고 훈련혁명의 열기와 성과를 확대시켜나가는것과 함께 인민군대에 장비된 경포, 중무기들의 성능상태를 료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군단장들의 힘찬 사격구령이 내려지자 멀적의 강철포신들이 일제히 불을 토했으며 목표는 순간에 불바다로 화하였다.

포사격훈련에서 박격포병들은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실전능력을 소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해온 나날들에 자기들이 련마한 포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줌으로써 그 어떤 화려지원전 투입 무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된 일당백포병의 전투력을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 각 군단들에서 조선로동당의 포병중시사상을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명포수운동

의 불길속에 화력구분대들을 현대전에 능숙하게 대비할수 있게 잘 준비시킨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오늘처럼 전체 구분대들이 하나같이 포를 잘 쏘는 훈련은 처음 본다고,

각 군단들에서 임의의 구분대들을 지정하여 훈련장에 집결시켜놓고 불의에 훈련을 조직하였는데 훈련결과를 보면 놀라지 않을수 없다고, 마치 포탄에 눈이 달린것만 같이 목표를 명중하는데

화의 구조를 내들고 포병싸움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포병훈련과 포무장현대화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사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념원을 받들어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이룩하자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이 다가오는 이 시각 우리 겨레는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한생의 로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치신 평생의 로고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쌓으신 위대한 업적은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뜻이었으며 절절한 념원이였다. 나라의 장사를 토론하실 때에도, 이른 새벽 농장의 포전길을 걸으시고 창조와 혁신으로 걸음은 건설자의 발걸음을 걸으시어도, 창밖에 눈비내려도 언제나 피를 나눈 겨레를 생각하시고 통일문제를 두고 마음씨 오신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하나의 조선!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불변의 통일의지고 절대적인 신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서 조국해방의 민족사적위업을 성취하신것은 분렬된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였다. 수령님께서 백두밀영에서 등잔불을 드시고 회복보신 조국의 지도는

백두산에서 한산에 이르는 삼천리조선이였고 동동강간 조선이 아니였다. 하기 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시고 변함없이 견지하신 조국통일로선은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민족자주의 로선이며 통일조국의 부강발전과 전민족의 통일번영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로선이다.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직되던 엄혹한 시기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어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리게 하신분도 수령님이시고 반동세력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분쇄하고 격렬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어 조국통일운동의 새 국면을 열어놓으신분도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밝힌 조국통일3대현장을 제시하시어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도 마련하여주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현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어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다. 조국통일3대현장은 북과 남에서 다른 사상과 계도가 오해동안 존재하여온 우리 나라의 현실을 따라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할수 있도록 의지를 안으시고 통일위업실현을 위하여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히지》,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령도업적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는 진로를 밝혀주시였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현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우리 겨레가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높이 들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우리 겨레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통일업적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절세위인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은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현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현장은 통일을 념원하는 우리 민족 모두가 받들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질수 있

어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림장에서는 변화가 있을수 없다. 은 겨레는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조국통일3대현장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해나갈것이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의 분렬을 하루빨리 끝장내기 위하여서는 자주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민족자주는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조국통일의 주제는 다음이 아닌 우리 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실질적인 힘도 우리 민족 자신에게 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겨레가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주의 힘으로 이룩해나가는것은 당연하다.

민족자주가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길이라면 외세의존은 민족의 영구분렬과 망국의 길이다. 자주 남조선당국이 민족의 자주적지향에 역행하여 계속 외세의존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하고있는 것은 통일을 하자는 자세가 아니며 그자체가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통일과 분렬, 애국과 매국, 전쟁과 평화가 광범될수 없는것처럼 민족자주와 외세의존은 결코 광범될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철저히 놓고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며 민족자주

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민족자주의식을 높이고 민족자주력을 다져나가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은 그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다.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는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다. 은 민족은 조국통일의 큰 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경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동포들은 사는 곳은 서로 다르지만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는 통일애국의 한마음한뜻으로 민족대단결의 대하에 합류해나사야 한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외세의 분렬리간책동과 그에 편승하는 일체 대결적인 행위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는 또 한번의 절세위인이시며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불멸의 업적을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은 날이라고 거듭거듭 기쁨과 보람을 느끼시는듯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포탄 60발중 60발을 정확히 목표로 명중시킨 제2군단과 제10군단을 비롯하여 모두 강한 우의 성적을 받은 각 군단 박격포병중대들의 놀라운 사격술을 거듭 치하하시면서 감시소에서 화력전지들에 감사사를 전하시였다.

화선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를 전달받는 커다란 영광을 받아안은 포병전투원들은 크나큰 걱정과 환희에 넘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렸다.

훈련관정순위에서 1위를 쟁취한 제2군단관하 박격포병중대에 명포수상장과 메달, 휘장이 수여되고 경기에 참가하여 경이적인 성적을 받은 모든 구분대들에 명포수구분대중서와 휘장이 수여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가 박격포를 비롯한 경포와 중무기들을 작전과 전투에 잘 리용하기 위한 훈련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현대전에서 포병부력의 리용은 작전과 전투 나아가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것만큼 우리는 계속 포병중시, 포병강

화의 구조를 내들고 포병싸움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포병훈련과 포무장현대화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영원한 4월의 봄을 노래합니다

4월은 봄이다. 단지 새싹들이 울러나고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자연의 봄만이 아니다.

4월의 봄이 온 나라 인민들에게 류달리 따스한 봄으로 안겨주고 인민들이 봄중에서 4월의 봄을 특별히 사랑하고 즐겨 노래부르는 것은 이 4월에 절세의 위인이 탄생하시고 나라와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새로운 역사적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인민위전을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인민의 아버지이다.

그이께서는 4월의 봄날에 수수한 초가집인 만경대고향집에서 인민의 아들로 탄생하시었다. 이 4월의 봄, 만경대의 봄이 있어 오랜 세월 봉건사회의 락후와 빈궁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강도, 왜적에게 란도질당하여 쓰라린 상처를 입었던 이 땅에 진정한 인민의 봄, 조건의 봄이 오게 되었다. 그 봄날이 있어 인민들은 나라의 주인이 되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자주적운명개척의 길을 힘차게 걸어올수 있게 되었다.

지난날 우리 겨레는 봉건제도의 질곡속에서 살면서, 일제의 학정하에서 살면서도 자기가 태를 묻은 땅, 자기 운명을 지켜주는 나라에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이상사회를 갈망해왔다.

민족의 세기적수목은 절세의 예극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어 비로소 성취될수 있었다.

이 나라의 어린이나 늙은이나 할것없이 애창하는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에는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시어 세상에 유일무이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열렬한 칭송이 그대로 응축되어있다.

4월의 아름다운 봄날과 더불어 사람들이 더욱 절절히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아름다운 시어와 선율이 마음을 실으면 위대한 수령님의 환하신 영상과 인자하신 미소, 따뜻한 손길, 거룩한 체취가 숨쉬며 안겨온다. 그이의 예극애민의 고귀한 한성이 가슴속에 뜨겁게 마쳐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벌써 10대의 시절에 한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생각하시었다. 민족의 소망을 기어아 푸시려는 뜻이 원대하시였기에 꿈 많은 소학교시절에 지으신 《애극》이라는 제목의 작문에서 나라를 세우고 백성

을 위하여 복부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광이며 무로 된다는 자신의 삶의 목표와 이상, 포부를 펴려하시었다.

과연 이 땅에서 왜놈들이 없었겠는지, 언제면 나라가 망국의 치욕을 벗겼는지 생각하며 온 민족이 조국해방만을 일일천후로 학수고대하고있던 암흑의 세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으시고 나라의 독립도, 민족의 밝은 전도도 그려보시었다.

그이께서는 화성의속에서 공부하시실 때 학우들에게 우리는 조선을 독립시킨 후 조국땅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잘사는 그런 사회를 세우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애국의 뜻과 의지가 강렬하고 포부가 원대하고 결심이 확고하시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함일대전을 선포하시고 포어린 무장항쟁으로 간악무도한 일제를 라도하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시었다.

해방후 것처럼 어렵고 험난한 빈터우에서, 전후의 폐허우에서 새 민주조선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짧은 기간에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세우시었다. 누구나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을 모르고 사는 제도, 무료교육, 무상치료와 같은 인민적인 시책을 베푸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보람찬 삶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무엇 노래는 사람들의 생활의 반영이고 풍부한 감정정서의 발현이라고 한다. 때문에 노래를 심장의 언어라고도 하고 시대의 메아리라고도 하는것이이다.

외세에게 잃었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것처럼 소원한 새 세상을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인민이 복받은 시대, 나라가 번영하는 시대에 노래 《세상에 부



김덕광산을 현지도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주제 50(1961)년 4월

럼없어라》가 태어나 온 나라에 메아리쳐갔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꼽소리 울러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우리의 아버지인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지난 세기 60년대에 나온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에 담긴 아름다운 리상과 행복의 시대를 열어 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이어 장강 수심성상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 높이 울려가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헌신의 자국은 나라의 동북쪽 마지막마을인 우암동과 해발 2500m를 헤아리는 관모봉기슭에 자리잡은 경성군 은포현동농장에도, 파도가 솟구치는 바다를 향해하시며 몸소 찾으신 비단섬과 20리 날바다를 가로막을 갑문의 위치를 정하여주시

해의 배길에도 새겨져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주제83(1994)년 6월 30°C 이상의 무더위속에서 인민들이 보면 가슴아파한다시며 지평이를 승용차에 두시고 불현하신 몸으로 밖에서 오랜 시간 농사일을 의논하신 사연을 온천군 금당벌의 농민들을 비롯하여 인민들은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진정한 인민의 위대한 수령,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었다. 항구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부르는 노래, 알고있는 많고 많은 노래가운데서도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그토록 사랑하고 제일 많이 불렀다.

위대한 수령님시대에 부르고부른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위대한 장군님시대에 온 나라 남녀노소가 사회주의찬가로 더 자랑하게, 더 즐겨부르는 노래가 되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준공식이 있었을 때의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손수 붉은 테

프를 끊으시었다. 그러시고는 우람하게 솟아있는 궁전을 바라보시었다.

기본건물의 량쪽날개가 곡선을 이루면서 마치 두팔을 벌리고있는것 같은 궁전의 자태는 학생소년들을 사랑하는 조선로동당의 품을 형상하고있었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궁전이 아주 멋있다고, 설계도 잘하고 짓기도 잘하였다고, 설계가들이 형성도 안을 《품》이라고 하였다고, 데 뜻깊게 이름을 지었다고,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에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정말 우리 어린이들은 당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고있다고,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참 좋은 노래이라고 하시었다.

그날 궁전을 다 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궁전이라고 하시며 당의 품이 진정한 어머니의 품으로 되고있는 나라는 세상에 우리 나라밖에 없다

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나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민의 마음속에서는 《세상에 부럼없어라》 노래가 끊임없이 울리었다.

나라의 정세가 엄혹하고 전쟁의 검은구름이 무겁게 밀려들던 고난의 시기 최고사령부의 작전지도우에는 인민생활향상과 관련한 많은 대책안들이 함께 놓여 있었다.

국방력강화를 위하여 한푼의 자금이 것처럼 귀하였던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무료교육과 무상치료를 비롯한 인민적시책을 중단없이 실시하도록 하시었고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많은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시었다.

때로는 폭잡으로 휴식을 대신하시고 꿰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며 험한 칼버

랑길과 파도 세찬 바다길을 헤치고 최전연초소들과 천 리방선을 찾으시며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생결단의 선군장정이 있어 인민들은 자기의 생명이고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있었고 자주적 인민의 존엄을 떨칠수 있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험한 길을 걷는것이 자신에게는 락으로 된다고 하시며 우리 인민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될 래일을 향하여 자신께서는 기발을 들고 앞으로만 내달리겠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에 의하여 조국의 하늘은 맑고 푸름을 잃지 않았으며 인민의 복리향상과 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튼튼한 도약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나는 때로부터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새 세대들은 물론이고 머리흰 로인이 이르기까지 온 나라 인민이 오늘도 이 노래를 즐겨 부르고있다.

노래는 시대의 숨결을 반영한다. 세월은 흐르고 산천도 몰라보게 변하였지만 인민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조건의 제도와 정치는 변함이 없고 인민사랑의 력사는 끝없이 흐르고있다.

이 조선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인민사랑을 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그이께서는 인민에 대한 열사부투의 정신을 지니시고 모든 국가사업을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데로 지향시키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애민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땅우에서 《세상에 부럼

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세해전 1월 정초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락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

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총부,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것을 새해의 이 아침에 엄숙히 맹약하는바입니다라고 언명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꿈과 리상실현을 위하여 열사부투의 령정을 끝없이 이어가신다. 삼지연시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미래과학자거리, 마식령스키장과 려명거리, 과학기술전당, 중령남새온실농장 등 새 도시, 새 거리들과 문화정서생활기지를 비롯한 창조물들과 교육과 보건을 비롯한 사회주의명명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은 인민의 웃음을 사회주의 강국의 제일정표로 내세우시고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다.

오늘 공화국이 버리는 정면돌파전도 인민의 존엄높은 삶과 행복을 지키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복무전이다.

얼마전 평양종합병원건설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첫삽을 뜨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종합병원건설을 통하여 오늘의 정면돌파전을 인민에 대한 열사부투로 일관시키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었다.

지금 전체 인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에서 우리모두가 불굴의 혁명신념과 불같은 조국애, 결연불굴의 투쟁정신으로 계속 힘차게 투쟁한다면 난관은 격파될것이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실생활로 될 새로운 승리를 맞이하게 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더욱 가다듬으며 전변의 열사부를 창조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화창한 4월의 봄날과 더불어 인민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더 높이 울려갈것이다. 리 설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 길에 전해지는 한장의 뜻깊은 사진이 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홍명희선생과 함께 찍으신 사진이다.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가던 19세기말에 태어나 반일의 뜻을 품고 신간회에 참여한 여보였고 장정소설 《립정》의 창작으로 일제에게 항거해보기도 한 홍명희선생.

해방후 남조선에서 민주독립당 당수로 활동하면서 1948년 4월

에는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협의회에 참가하였던 그였다.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고 평양에서 보낸 나날은 불과 며칠되지 않았지만 이 나날에 그의 가슴속에는 절세의 위인을 모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자기의 적은 힘이나마 바치려는 결심이 깊이 뿌리내렸다.

주제47(1958)년 5월 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내각 부수장이었던 홍명희선생을 자신의 차에 태우시고 어느 한 호수가로 향하시었다.

그이께서 홍명희선생과 함께 호수가에 도착하시었을 때 그곳에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몇몇 일꾼들과 함께 이미 와계시었다.

호수가에 이르신 수령님께서는 오늘 날씨가 참 좋다고, 공기도 참 맑다고 하시며 환한시 모습으로 호수가를 바라보시었다.

홍명희선생과 이야기를 나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보트를 라지 않겠는가고 물으시었다.

홍명희선생이 《보트를 라고싶으니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노를...》하고 말끝을 맺지 못하자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노를 저어드리겠다고, 이런 때 아니면 언제 또 보트를 라보겠는가고 하시며 그를 배가 있는 곳으로 이끄시었다.

어찌할바를 몰라하는 그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어서 배에 오르시라고 재삼 권하시었다.

그제서야 너lot한 자기를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뜻을 깨달은 그는 눈앞이 흐려짐을 금할수 없었다.

《수령님, 노 저으시는 솜씨가 대단합니다.》 그의 말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수령님께서는 조용하신 음성으로 선생이 젊으신 때에는 배를 라셨겠는데 이젠 칠순이 넘었으니 언제 배를 라보시겠는가고, 그래서 내가 호수가로 모셔왔다고, 늘 사무실에만 계시지 말고 시간을 내서라도 산보도 하고 배놀이도 하시라고, 그래서 로당직장하여 통일의 날도 보고 서울에도 나가보셔야 할것이 아닌가고 뜨거운 정을 담아 교시하시었다.

그가 배에 오르려는것을 부축하여주시어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그를 배의 곁목쪽에 앉히시고 자신께서는 가운데자리를 잡으시며 노를 쥐시었다.

잔잔한 수면을 하얗게 사연을 담은듯 무수한 파문이 일어나고 배는 미끄러지듯

어 수령님께서 라신 배를 향해 굽히 노를 저어가시었다. 이날 내각수상과 부수상이라는 판전의 차이를 초월하여 노를 저으시며 배를 호심깊이 몰아가시는 절세의 위인의 인자하신 모습과 그에게 모든것을 다 맡기고 청춘이 되살안듯 환하게 웃고있는 홍명희선생의 모습을 담은 뜻깊은 화폭은 바로 이런 사랑속에 마련되어 우리 민족사의 갈피에 새겨져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생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홍명희선생에게 돌려주신 뜨거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감회깊이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최고는 홍명희선생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호수기슭을 거니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진기를 든 일꾼에게 수령님의 저 영상을 사진으로 남겨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었다.

그가 노를 저을출 모른다든 사정을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게서 사진기를 받아드시고 배에 오르시

교시하시었다. 《그때 수령님께서서 홍명희선생과 단 둘이 탄 배에서 직접 노를 저으시는 력사적인 화폭을 담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은 내가 찍은것입니다. 그때 내가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그 모습을 사진 찍으려고 하니 홍명희선생은 사진기를 잘 찍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력사의 화폭앞서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에 나선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굳게 믿어주시고 한없이 송고한 사랑을 베풀어주시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덕망에 대해 다시금 되새겨보게 된다.

이렇듯 위대한 품에 안긴 홍명희선생이였기에 제생의 삶을 지닌 그날로부터 문화국정부 부수상, 초대과학원원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요한 직책에서 사업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 통일애국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고 오늘도 조국통일상수상자로, 예극자로 영생의 삶을 누리고있는것이이다. 본사기자 강류성

그날의 영광을 가슴깊이 감직하고

민족최대의 경사로온 명절인 태양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지금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가슴에 사무쳐온다.

한평생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통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우리 수령님은 온 겨레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었다.

지금도 그의 환하신 영상을 우리를 때면 60여년 전 그날의 감격이 가슴에 그들머이 차오른다.

주제 43(1954)년 8월 나는 모란봉지구극장에서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조선인민군 제7차 군무자세출결연에 참가하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었다.



준엄했던 전하의 나날 강철의 령장 김일성장군님의 락월한 령도따라 용맹을 떨친 영웅전사들의 무대에서 나는 민요대창으로 《가르리랑》을 부르고 민족기악학주 《아리랑》에 출연하였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공연을 진행하였다. 그때마다 수령님께서는 제일먼저 박수를 보내시며 우리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치하해주시었다.

화선악기, 화선음악으로 전승의 축포성을 높이 울리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전후에는 군무자세출결연무대까지 마련해주시어 어제 날 로동자, 농민출신의 병사들이 부르는 소박한 전승의 노래, 랑만의 노래를 그러도 대견히 들어주시던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오늘도 나의 가슴속에 소중히 새겨져있다. 하기에 나는 조국통일의 길에 나섰다가 체포된 후 아버지수령님앞에서 부르던 그날의 노래를 불러보곤 하면서 조국을 생각하고 30여

년 처다한 감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념을 지켜 끝까지 싸워 이길수 있었다. 공화국의 품에 다시 안겨 크나큰 행복만을 누리게있는 나는 때때로 철창속에서 아버지수령님을 그리며 지었던 노래를 부르며 신념과 의지를 더욱 가다듬곤 한다.

수령님 뵈고싶어 노래를 부르던 노래속에 그 모습 웃어 반기네
동요 말라 굴복 말라 고무 하시는
수령님의 노래 없인 우린 못살아 ...

오늘도 아버지수령님께서 나의 노래를 들어주시며 선함박수를 보내주실것만 같다. 아버지수령님을 그리는 노래를 부르며 사위이건것처럼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 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노래를 소리높이 부르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통일을 위한 애국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 비전량장기수 최선득

장시

태양의 사랑은 세월의 한 끝까지

김태룡

봄, 4월의 봄
가슴에 간절한 수령님생각이
하늘땅가득 차넘치는 태양절
인민의 그리움 꽃으로 피어
수령님 꽃속에 환히 웃으시는가

한생토록 사랑으로 가꾸신 땅에
세세년년 만복의 열매 주렁지고
베푸신 은덕은 햇빛처럼 따사로워
오늘도 그 정을 두고 목메이는 마음에
뜨겁게 울리는 원수님말씀

-지금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덕을 보며 살고있습니다

아, 수령님의 덕!
누구보다 더욱 간절 하실 심중의
그리움
이 부름에 실어 그이 터놓으신것인가
그 말씀에 더욱 복받쳐오르는
수령님생각 수령님의 한평생이여

한생에 오직 인민밖에 모르시였어라
인민앞에 자신을 그토록 낮추시며
현신을 더없는 락으로 여기신 어버이
만가지 덕을 안겨주시고도
천만가지 복 주시려 늘 마음쓰시
였어라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은
오복을 소원하였는데
나는 만복을 안겨주려 한다 하시며
끝없이 걸으신 로고의 길이여
문노니, 우리 한생 걸고걸은들
다 걸을수 있으랴 그 끝을 다 알랴

산간오지의 마을에 가면
마을의 맨 끝집까지 찾아오시여
몸소 쌀독도 열어보시고
장맛까지 보아주시 이야기
세월을 넘어 눈물겹게 전해가더라

철없는 아이들의 숙제장도 번져보신
배움의 교정은 이 땅에 열매였고
새벽이슬 맞으신 논두렁에서
밤비까지 맞으며 나누신 농사이야기
그런 포전 이 땅에 헤어보아 열머더나

지금도 귀전에 울러오누나
자신께선 인민을 피해다니는
량반이 되고싶지 않다고

인민을 떠나
우리가 무슨 값있는 존재인가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절절하신 음성이

세상에 만가지 락이 있다 해도
명석우에 인민들과 마주앉아 나누는
허물없는 담소를 제일 즐겨하신분
세상 천하진미 있다 해도
인민을 찾아가시는 길에 달게 드시던
그 풋강병이의 별미를 제일로
여기신분

오로지 인민의 복락을 위해
멀어도 힘겨워도 가시던 길
다시 문노니, 봄빛질은 길이어
하늘처럼 인민을 떠받들어 오신
길에
일요일, 생신날 따로 있었던가

현실도 료해하고 인민들과 만나보는
이 이상 더 만족한 일요일은 없다고
이제 자신의 휴식이라 하시며
강사와 통강, 온천으로 이어가신 길
세월을 이어 온 나라 방방곡곡에 닿
았으니

해방후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수령님 맞으신 일요일은
7년세월과 맞먹는 2 530여일
그 많은 일요일은 수령님께 있어
로고와 심혈로 맞고보내신 로동일이
였어라

축하를 받으셔야 할 탄생일에도
양어장 썬터를 찾아 진창길 헤치시
였고
농사격정으로 논밭을 뜨지 못하시었다
탄전을 찾아 종일 탄문제로 마음
쓰시던
그날도 4월 15일이였다

그렇더라
달력에도 없는
수령님의 남다른 휴식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인민의 행복이였고
인민의 기쁨이였다

열과 정 심신을 다 바쳐온 성스런
생애
애국애민의 대장정과 같은
수령님의 80여성상

사람들이여, 우리 어찌
고생이란 범상한 말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이 땅에 맥맥히 굵어치간
그 헌신의 장장 천만리에서
인민이 꿈같이 맞은 복받은 년대
《기적의 나라》 《전설의 나라》로
내 조국이 세상에 빛을 뿌린 존엄의
년대

농촌레제의 빛발이 눈부셔
풍년벌에 농악소리 그칠새 없던
나날들이며
즐비하게 일떠서던 새 거리
공업국가의 역센 기둥 하늘에 치솟아
자립의 철마들이 탄생하던 전변의
나날들이여

꿈만 같이 펼쳐진 천지개벽
이제 모두 수령님의 은덕일세
어디서나 울려나오던 환희의 노래
오늘의 이 행복을 그 누가 주었나
로동당이 주었네 수령님이 주셨네
인민이 고마움에 부르고부르던 노래

위인의 업적은 당대에 빛부리고
후세엔 추억의 갈피에 남는다 하지만
아니여라, 수령님은덕은
우리의 생활에 희열을 더해주고
번영의 력사로 이 땅에 이어져 흐르
거니

산을 보면 모든 산에서
황금을 파내라시던 그 음성 들려오
누나
매일 어린이들에게 과일 두알씩
어른들에게 한알씩 공급하자고
수첩에 손수 계산해보시던 과일의
알수
그 녀윈 알알이 익어 황금산이로구나

벼이삭 일렁이는 황금벌에 서면
허리춤에 두손 얹으시고
벼바다에서 웃으시던 수령님모습
우리를 잘살게 하여주시려
그리도 품을 들어 가꾸신 그 옥토별
이다

떠나갈 땐 빈배로 가지만
돌아올 때는 배전에 넘친다

풍어의 소식 그처럼 반가우시여
수령님 흥겹게 민요가락 넘기며
그리신
푸르른 바다 행복의 파도
오늘은 황금해에 일파만파 출렁이여라

어딜 가나 수령님자욱 력력한 땅
수령님 사랑과 은정 스며여있는 땅
이 땅을 살붙이처럼 한생 품어
안으시고
열과 정 강그리 다 쏟으신 우리
장군님

부락컨대, 봄이여
못 잊을 그 은공 부디 꽃으로 피워다오
대대손손 누려갈 더 좋은 래일 그려
보시며
푸른 산 푸른 들이라 조용히 외우시고
두고온 조국과 인민이 못내 그리워
천리 먼곳 이역의 하늘아래서
내 나라 내 민족이라고 불러보시던
그 정깊은 음성 가슴울려 눈곱젖나니

수령님처럼 인민의 행복
그 하나의 소원만을 소중히 품고
사신분
하늘같이 넓고도 넓은 품에
자신의 심장처럼 뜨겁게 싸안으신
것은
오직 인민밖에 없으셨으니

수령님시대의 모든 영광을
가장 준엄한 년대에
눈부신 조선의 존엄으로 떨치셨어라
끝없이 부어주시 사랑과 정의 날과
달로
수령님은덕의 세월 이어주시였어라

수령님의 모습으로!
장군님의 의지대로!
오로지 이 뜻으로 가슴태우시며
만가지 복 차넘치는 이 땅우에
만가지 덕을 베푸시는 우리 원수님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라 하신 원수님의
맹약

그 맹약속에 이어지는 인민사랑의

력사여
인민!
우리 수령님들의 위대한 생애
그 한생을 대신하는 이 부름에
가슴타는 열망을 얹으신 원수님
이 부름 아닌 그 무슨 말로
그이의 사랑 그이의 헌신을 말하랴

저 북변의 한끝 삼지연땅에
회한하게 일떠선 산간문화도시
양덕땅의 황홀한 온천문화휴양지여
저 중평땅의 무연한 온실의 바다
황홀하게 솟구치는 행복의 거리들
이여

우리 보지 않았더나
수도의 명당자리에 일떠설 종합병원
착공의 발 파 단 추를 누르시던
원수님모습
이 땅을 울리고 인민의 가슴울린
그 발파소리는 인간사랑의 위대한
선언!

이제 그 메아리
완공의 환호성으로 하늘땅을 뒤울
리리
저 동해의 기슭에 인과십리 굽어치고
새라새로운 전변과 기적들이
우리 사는 이 땅우에
더없는 궁지와 행복의 전설을 수놓
으리

그 누가 선심 베풀어준 덕이던가
풍요한 재부로 일군 우리의 행복이
던가
천리마시대 자력의 정신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주신 수령님들의 덕!
모든것을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강국의 력사 향도하시는 원수님의 덕!

얼마나 아름답고 희망으로 밝고
밝으나
남다른 슬기와 꾸준한 정열을
창조와 기적의 기념비로 말하는
오, 김정은시대!
자기가 갈길 남에게 묻지 않으며
제힘으로 열여가는 번영의 미래는
행복의 오늘이 너무도 꿈만 같아
기쁨의 래일이 참으로 가슴벅차

여기서 우리 살리라
원수님 받들어 무궁토록
세상에 없는 행복 노래하며 살리라
오, 영원한 태양절과 더불어
인민이 못 잊는 태양의 사랑
길이길이 흐르리라 세월의 한끝까지

넘치는 웃음 노래로 이어져
이 땅에 울리는 행복의 노래
복받은 인민이 부르는 기쁨의 노래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심었더니 마을에 꽃이 피었소
봄철에는 구름꽃 하얗게 피고
가을에는 알알이 붉게 익었소
...

60년세월이 흐르고 흘렀어도
수령님은덕, 장군님사랑을 길이 전하
는 노래
수령님리상 장군님의 녀윈
이 땅에 꽃피우실 원수님의 의지가
뜨겁게 열렬하게 어려있는 이 노래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녀윈대로
우리 나라를 꽃피는 사회주의락원
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고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열정이
솟구치군 합니더

오, 우리는 민노라
인민을 세상 제일로 여기시는 원수님
원대한 꿈 품으신 그이의 심장속에
더 넓어지고 더 아름다와질
인민의 무릉도원 락원이 있음을

우리 수령님들 세우고 빛내이신
인민의 나라 인민의 천국에
강국의 기둥 억척같이 세우시고
수령님들 녀윈 꽃피는 이 하늘아래
영원한 사랑의 송가
인민찬가를 울려가실 우리 원수님

대대손손 수령의 은덕을 입고사는
우리처럼 행복한 인민 세상에 있
으랴
세상은 온갖 동란으로 아우성쳐도
웃음이 넘쳐 천만복이 차고넘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내 나라여

여기서 우리 살리라
원수님 받들어 무궁토록
세상에 없는 행복 노래하며 살리라
오, 영원한 태양절과 더불어
인민이 못 잊는 태양의 사랑
길이길이 흐르리라 세월의 한끝까지



강국 념원을 꽃피우는 탁월한 령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국가건설 사상과 업적을 계승발전시키시어 공화국을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내이시고 강국건설의 전향적 측면을 열어놓으시는 세계가 공인하는 회세의 정치가이시며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탁월한 예지와 현명한 령도로 민족대대의 통성변영을 위한 강력한 정치군사적, 경제적으로 마련하시었다.

오늘 공화국이 세계에서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찬연히 빛을 뿌리고 나라의 군력이 최상의 경지에 이를수 있는 것은 전체 인민을 승리와 기적창조로 불러일으킨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천만갈래로 얽힌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백성의 지략과 묘술을 제시하시고 련속적인 공격전으로 적대세력들의 침략전쟁도발책동을 사전제압하시며 무전무혈의 승리를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탁월하고 세련된 령군술을 지니신 군사영재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인민군대를 주체전법을 체득하고 대담무쌍한 공격방식과 실전능력을 소유한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몹소 군인들의 훈련을 지도하시며 인민군대의 강군화를 실현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모든 군중, 병종, 전문부대들이 정예의 전투대로로 강화발전되게 되었다.

지난 3월에 있는 조선인민군 서부전선대련합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에서 보여준 인민군인들의 높은 포사격술도 공화국군대의 전투력에 대하여 잘 알수 있게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국방공업을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국방공업으로 발전시키고 인민군대를 첨단무기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나라와 인민을 수호하기 위한 결사전의 진두에 서시어 국방과학연구기관들과 위험천만한 시험장들을 찾코 찾다니 이 땅의 평화를 담보하는 강력한 보검을 마련하는 력사적위업을 최단기간내에 실현하도록 하시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주체무기들이 련이어 태어나고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은 비상히 강화되고있다.

인재와 과학기술을 주되는 전략자원으로 틀어쥐시고 인민의 자력갱생정신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총폭발시키 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자립경제의 발전잠재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국가경제발전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자기 도, 자기 공장을 대표

하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늘어나고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압살책동속에서도 자립적경제가 장성강화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정권을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를 존재방식으로 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 늘처럼 여기고 사랑하신 인민을 수령님들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드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관이다.

인민을 가장 신성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떠받들고 수령님들의 평생의 사랑을 다 합쳐 인민의 념원과 꿈을 모두 이루어놓으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리상이고 목표이다.

그이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세월을 앞당기는 경이적인 비약과 변혁이 일어나고 사회주의문명창조의 빛나는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믿음과 사랑이 담겨져있다.

인민들이 어느것을 좋아하는가. 무엇보다 인민들이 편 끼겠는가. 인민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여야 한다. 인민들을 위한것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인민을 위하여 꼭 하고싶었던 일이다. 인민들이 당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당은 인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이런분 이시다.

마식령스키장, 양덕운전문 화후양지, 과학기술전당, 러 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류 경치과병원, 룡라인민유원지, 미래상점, 평양대동강수산물시장, 룡양산생물공장, 금산포켓갈가공공장을 비롯한 모든 창조물들이 이룩우 구, 이런 기준에 의하여 건설된 인민의 향유물, 나라의 재부들이다.

인민의 웃음소리, 생생의 동음 높여 울리는 하나하나의 창조물들과 생산기지들에는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는 인민사랑의 열과 정을 지니시고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민헌신의 길을 이어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의 자욱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으시며 불면불휴의 사색과 탐구, 정력적인 현지도로 날과 달을 맞고보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헌신의 로고속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날로 커가고있는것이다.

참으로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민족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이 땅우에 강성변영을 앞당기는 창조와 건설의 일대 변혁기가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위대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서 이룩되고 있는 거창한 전변의 기적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백승의 기치이시며 그이의 령도를 따르는 길에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 무궁한 발전과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철리를 더욱 깊이 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따라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여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을 기어 이 일떠세우려는것은 공화국인민들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이다.

은 나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받들어 강국건설의 새로운 전환적 측면을 힘있게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와 위인적품모에서 공화국의 밝은 미래를 확신있게 내다 보고있다.

인민의 행복과 웃음이 넘쳐나는 공화국의 그 어디에 가도, 누구를 만나보아도 들게 되는 말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되어온것처럼 오늘도, 래일도 그이 계시어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친다 해도 두려운것이 없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척의 신념과 믿음이 어려 있는 만사들의 교백이라 해야 할것이다.

위인의 품모는 책갈피보다 먼저 인민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법이다.

나라의 부강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차디 찬 눈바람도 비바람도 달게 맞으시며 끝없는 애민헌신의 길을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보으며 공화국의 인민들은 누구나 가슴깊이 간직하였다. 세상에 우리 원수님처럼 조국과 인민을 불같이 사랑하는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어버이는 없으며 창조와 전변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어 우리 공화국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척의 신념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고 구상하시는 것은 다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한것이고 후손대대의 행복을 위한것이다. 이것을 실행할체함을 통해 너무도 잘 아는 공화국인민들이기에 령도자의 구상을 받들어 남들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도 기어 해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도 안아오는것이다.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는 첨단국방과학의 급속한 발전, 농사에

최고수확년도를 돌파한 기적, 삼지연시푸리기 2단계 공사결속, 대규모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건설, 양덕운전문 화후양지건설, ...

지난해 공화국에서 이룩된 이 자랑스런 성과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온 나라 인민이 굳게 뭉쳐 그이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였기때문이다.

국가의 강대성은 결코 령도의 크기나 인구수에 따라 결정되는것이 아니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일심단결, 혼연일체야말로 세계가 공인하는 공화국의 가장 강력한 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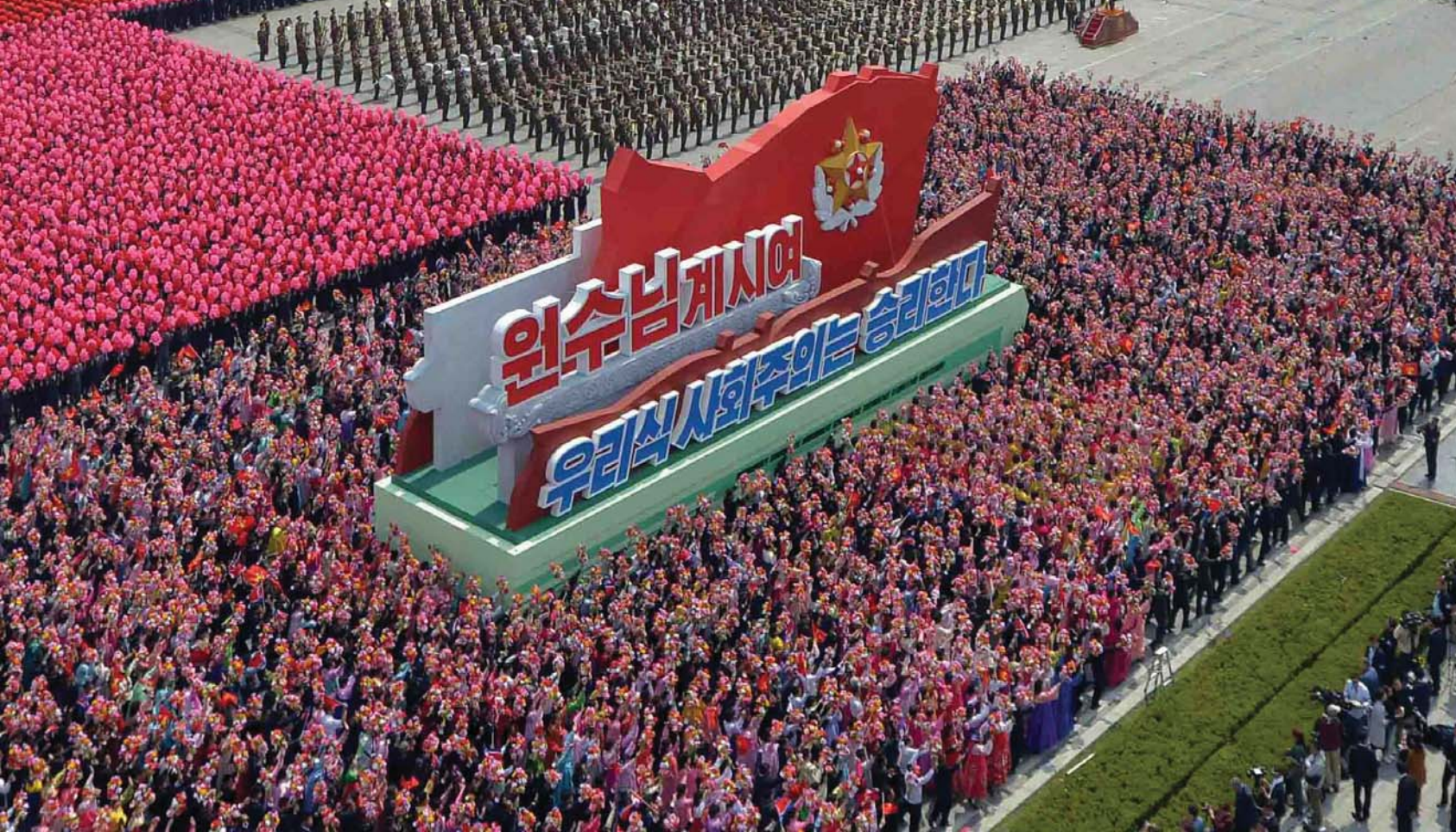
숭고한 인민사랑으로 흘러가는 공화국의 력사에 또 하나의 감동깊은 화폭으로 새겨진 평양종합병원건설 착공식.

뜻깊은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원칙의 본성으로, 신성한 정치리념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반드시 결머치고 실행하여야 할 최우선무이며 또한 가장 영예로운 혁명사업으로 된다는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었다.

아무리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도 인민들에게 기어 이 세상 가장 큰 행복을 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령도를 받들어 공화국인민들은 창조와 건설의 대전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 서고있다.

본사기자 한일혁

위대한 애국의 평년행 방들이



본사기자 주일봉

매화와 흙모

오직 수령님들의 뜻대로

은갖 꽃들이 피어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화창한 4월이다.

이 계절이 오면 온 나라 인민들은 한평생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낮이나 밤이나 끝없는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굽을 적신다. 그와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걸고걸으신 사회주의수호와 조국번영의 길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고결한 총정의 세계가 뜨겁게 어려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너무도 눈에 익은 달긴옷을 입으시고, 때로는 수수한 농림복을 스스럼없이 쓰시고 물고기비린내가 풍기는 어창에도 들리시고 험한 농장길도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를 때면 꼭 위대한 수령님들을 뵈옵는것만 같아 그리움의 눈물을 터치는 공화국인민들이다.

어찌 해빛같이 따사로운 환하신 그 모습뿐이라.

경애하는 원수님은 사상과 신념으로 보나, 담력과 배짱으로 보나, 인민을 위하는 뜨거운 덕망으로 보나 위대한 수령님들과 꼭같은 위인이시다.

지금으로부터 9년전인 주제100(2011)년 12월 어느날 일군들을 부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평생 열과 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넘치시어 그이의 거룩한 혁명생애를 뜨겁게 추억하시었다.

숭엄한 격정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령님의 후손들이고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가 어떻게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고 일떠서는가를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계속하시어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려는것은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1mm의 편차도 없이 장군님께서 하시던 그대로 모든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절대로 이것을 놓치면 안된다고 하시었다.

이뿐이 아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를 앞둔 그날에는 일군들에게 당대표자회를 통하여 수령님의 후손들이며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가 어떤 신념과 의지, 도덕의 리심을 가지고 자기 수령을 받들어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떨쳐나섰는가를 뚜렷이 보여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공화국은 어디서 어떤 바람

이 불어오고 그 어떤 곤란이 들이닥쳐도 절대로 굽어들지 않고 오직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자주의 한길, 사회주의의 한길로만 역세게 전진하고있다.

바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전의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였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위한 좋은 일들을 해놓으시면 위대한 수령님들생각을 먼저 하신다.

몇해전 그이께서 완공된 어느 한 육종장을 현지도 하실 때였다.

그날 육종장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육종장에 위대한 장군님을 모셨더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라의 재부가 하나 하나 늘어날 때마다 언제나 장군님께 보여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지워지지 않는 명울로 가슴속에 남아있다고 하시었다.

이뿐이 아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를 앞둔 그날에는 일군들에게 당대표자회를 통하여 수령님의 후손들이며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가 어떤 신념과 의지, 도덕의 리심을 가지고 자기 수령을 받들어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떨쳐나섰는가를 뚜렷이 보여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공화국은 어디서 어떤 바람

칠하려는것은 자신의 확고한 결심이라는데 대하여 강조 하시었다.

이처럼 언제나 마음속 첫 자리에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이라는 숭고한 사명감을 새겨안으시고 인민사랑의 현지도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현대화된 공장을 찾으시면서도, 농장길을 걸으시면서도, 아지가 휘도록 열매가 주렁진 사과나무를 보시면서도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시고 머나 먼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듬어보시려는가.

지난 3월 평양종합병원건설 착공식에서 하신 연설에서도 그이께서는 평양시안에서도 명당자리인 이곳에 우리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종합병원이 크게 건설되는 것을 아시던 아마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시것이라고 하시었다.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수령님들께서 걸으신 민족 자주위업의 한길만을 즐기 차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공화국인민들의 자주적존엄과 삶은 빛나고 인민이 만복을 누릴 찬란한 그날도 기어이 앞당겨져오게 되는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길에서

매 요소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주제104(2015)년 10월 어느날 김총재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돌아보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객차안으로 들어서시면서 문득 무릎을 굽히고 손으로 바닥을 짚어보시었다.

바닥에는 매끈한 합성수지를 깔았는데 그것을 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객차의 바닥에는 매끈해

곤한 깔판이 아니라 폼보 깔판을 깔아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걸음을 옮기시어 천정에 설치한 손잡이를 돌아보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객차안으로 들어서시면서 문득 무릎을 굽히고 손으로 바닥을 짚어보시었다.

바닥에는 매끈한 합성수지를 깔았는데 그것을 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객차의 바닥에는 매끈해

역수로 내리는 비를 맞으시며

주제107(2018)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안남도 양덕군안의 온천지구를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안의 온천들을 돌아보실 때에 소낙비가 역수로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잡으시었다. 그러시고는 손잡이가 잔뜩잔뜩하다고 하시면서 손잡이대에 고무나 가죽 같은것을 씌워주어야 한다고, 그리고 개별손잡이를 드리워놓아야 한다고 이리시었다.

내리는 비도 아랑곳하지 않고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모든것을 로해하시었고 해당 대책을 세워주시었다.

매줄기같은 비속에서도 양덕군 온천리일대의 온천골들을 돌아보시러 낮은 산밭들과 험한 평길을 헤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도가 80°C 되는 뜨거운 물이 더운 김을 피워올리며 팔팔 솟구치는 용출구를 보시며 그 무슨 보석이라도 찾으시듯, 쌓이신 피로가 다 가셔 지신듯 환하게 웃으시었다.

본사기자



인민을 위한 행복의 별천지로 꾸러진 양덕온전문화후양지

화창한 4월의 만경대

4월 15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태양절이다. 자연도 이날을 아는듯 4월이 오면 꽃이 피기 시작하여 4월 15일에는 온 나라에 꽃들이 만발한다.

지금 여기 유서깊은 만경대도 울긋불긋 꽃으로 단장되어 그 절경을 한껏 떨치고있다. 조선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다 보였는가. 위인이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며 애국의 큰뜻 키우신 고향집주변에도, 만경대의 봉우리에

도, 학습터와 들메나무주변에도 연분홍빛 진달래, 노란 개나리꽃, 하얀 살구꽃들이 활짝 피어나 명절의 분위기를 더욱 돋구어주고있다. 화창한 4월의 만경대, 조선의 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고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 민족의 창창한 래일도 만경대와 더불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글 본사기자 김춘경
사진 본사기자 동창현



백두산에서 대종교 상징물 발굴

김일성종합대학의 학술연구집단이 백두산의 장군봉에서 대종교관련유물을 발굴하고 고증하였다.

대종교는 1909년에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우리 겨레의 민족자주의식의 발현으로 발생한 순수한 조선종교로서 동방에서 처음으로 국가를 세운 민족의 원시조

단군을 숭배하고 민족의 기원과 단일성의 시점을 단군에게서 찾는 등 민족예를 지닌 종교이다.

발굴된 유물은 길이 31cm, 너비 21.5cm의 대리석판과 한번의 길이가 17.5cm인 바른삼각형의 푸른색옥돌판이다.

대리석판에는 수천년전에

사용된 옛 글자로 제목굴과 그아래에 가로세로 9자씩 총 81자의 글이 새겨져 있다.

연구집단은 대리석판에 새긴 글의 내용이 대종교의 기본경전의 하나인 《천부경》이며 푸른색옥돌판은 단군을 상징하여 만든것이라는것과 석판제작에 함경남도 리원지

방에서 나오는 대리석과 함경북도 청진지방에서 나오는 사문석이 이용되었다는것을 고증하였다.

이 석판들이 백두산에 묻힌것은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인들이 백두산을 조선민족의 성지, 대종교의 성지로 여기면서 열렬히 숭상하였기때문이라고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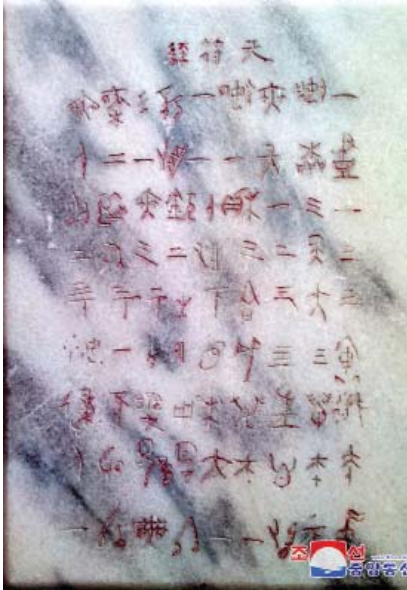
수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회고록 《새기와 더불어》에서 백두산에 대한 숭상은 곧 조선에 대한 숭상이었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회고하시였다.

대종교에서 백두산을 높히 숭상한것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조종의 산인 백두산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줄 절세의 위인이 출현하기를 애리게 바라던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의 반영이였다.

백두산에서 발굴된 대종교의 석판들은 통신비각,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제단유적, 종덕사와 함께 오래전부터 형성된 우리 민족의 백두산 숭상양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로 된다.

본사기자



만경봉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의 대동강기슭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만경봉은 해발높이가 45m이며 이곳에 오르면 두리의 만가지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한눈에 볼수 있는 곳이라 하여 예로부터 만경봉으로 불리워온다.

만경봉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시절 경의의 지와 큰 뜻을 키워 나가시던 불멸의 사적이 깃들여있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적이 깃들여있는 학습터, 씨름터, 무지개잡이소나무, 샘물터 등이 있다.

봉우리의 남서쪽기슭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만경대 고향집이 있다.

만경봉의 산봉우리는 주로 혈암, 편마암으로 이루어져있다.

만경봉의 동쪽에는 벼랑이 있으며 그림으로는 맑고 푸른 대동강이 유유히 흐르고있다.

산봉우리에는 사철 푸른 소나무숲이 우거져있고 곳곳에서 평양단풍나무, 진나루, 진달래, 넓은일점향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

감나무 그리고 갖가지의 관상용꽃나무들이 자라고있다.

첼따라 푸른 숲과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은 만경봉의 아름다운 자연풍치를 더욱 뛰어나게 한다.

특히 만물이 소생하고 온갖 꽃이 피어나는 4월의 만경봉은 한쪽의 그림과도 같이 아름답다.

봉우리에는 만경대정각이 있다.

여기서는 대동강의 한복판에 넓게 자리잡고있는 두루섬과 관유섬, 만경대일대의 자연풍치와 함께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평양의 모습 등 두리의 모든것이 생동하게 안겨온다.

본사기자

만경봉



목란은 목란과의 일종으로 봄이 피는 시기인 5월말~6월 중순이며 7월 초중순에는 거의 다 진다.

추위견딜성이 세며 잘 자란다. 높은 토양습도와 대기습도를 요구하며 특히 꽃피는 시기에 많은 물기를 요구한다.

번식은 씨앗, 접, 가지취어분기, 포기가르기 등으로

화로 정해주시었다.

목란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으며 함박꽃나무, 목련화(원꽃과 같은것이 나무에 핀다는 뜻)로 불리워왔다.

함경북도와 량강도, 가장도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각

지의 산골짜기, 산허리 등 습한 곳에서 다른 나무들과 같이 자란다.

나무높이는 2~5m이며 보통 여러대의 원줄기가 뿌리목에서 모여나와 포기를 이루며 드물게는 줄기가 외대로 나와 작은 키나무처럼 자란다.

꽃이 제일 많이 피는 시기는 5월말~6월 중순이며 7월 초중순에는 거의 다 진다.

추위견딜성이 세며 잘 자란다. 높은 토양습도와 대기습도를 요구하며 특히 꽃피는 시기에 많은 물기를 요구한다.

번식은 씨앗, 접, 가지취어분기, 포기가르기 등으로

하며 가지심기도 할수 있다.

목란은 나무모발에서 7~8년 자래워 대상지에 옮겨심는다.

목란은 꽃이 아름답고 향기로우며 나무잎과 나무모양이 보기 좋으므로 큰 공원, 유원지에 계곡을 형성하고 다른 나무들과 섞어심으면 나무도 잘 자라고 풍치도 좋아진다.

목란은 화분에 심어 방안과 주요건축물의 입구양쪽, 휴게실, 회의장 등에 놓으면 좋다.

꽃은 고급향료의 원료로 쓰며 잎은 서리전에 따서 그늘에 말리어 고혈압증이나 어지럼증에 쓴다.

본사기자

민족무용-《돈돌타리》

지난날 함경도 동해안지방의 민족무용을 말한다.

춤은 일래 해마다 4월에 녀성들이 달래를 케면서 추던 룬무형식의 춤이었다.

그후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 조국해방의 세일이 하루빨리 동러오기를 바라는 이 지방 인민들의 념원을 담아 《동돌타리》로 불리워지면서 보다 대중적인 춤으로 더욱 즐기치게 추어졌다.

춤은 흥겨운 잣은모리장단 혹은 덩덕장단을 타고 물에 가득 채운 함치나 낚그릇에 타들려서 들어놓고 막대기나 맨손바닥으로 그것을

두드려 궁글고 부드러운 소리의 리듬으로 흥취를 돋구었다.

강약이 명확한 장단과 노래에 맞추어 첫걸음을 크게 내걸고 깊은 굴신을 하였다가 다음번부터 얕은 굴신으로 가볍게 걸어나가는 건기 동작은 어찌 보면 한발을 잘 뜰거리려는듯 한 독특한 물동감을 자아낸다.

또한 걸기물동에 맞추어 머리와 함께 두팔을 겹쳐 좌우로 살레살레 흔들다가 두손목을 강하게 펴며 한동작을 매듭짓는 가락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온몸을 좌우로 가볍게 흔들면서 손목을 돌려 얼굴을 살살살락 가리우는 동작, 그와 대조되게 두팔을 앞뒤로 활달하게 흔들며 스텝달려가는 동작, 땅에 무릎

대고 몸방향을 급속히 바꾸거나 허리를 들어돌리며 바가지장단을 치는 동작 등은 돈돌타리춤에서만 볼수 있는 특징적인 동작들이다.

본사기자

사화

치마폭에 그린 포도송이 (2)

글 박홍준, 그림 채대성

이윽고 신사임당은 그녀가 벗어놓은 붉은 비단치마를 펼쳐놓고 그우에 붓을 놀리기 시작하였다.

잠깐사이엔 붉은 치마폭우에는 몇줄기의 포도넝쿨이 짙죽 뻗어나가고 크고작은 잎사귀들이 싱싱하게 수놓아졌으며 보기에도 소담하고 먹음직스러운 포도송이가 한송이, 두송이 달리기 시작하였다.

누가 보아도 그것은 불씨가 된 비단치마가 아니라 눈이 부시게 붉은 비단천을 바탕으로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울렸다.

그림이 다 되자 신사임당은 그것을 너인에게 넘겨주면서 여기서 한양이 멀지 않으니 장안저자거리에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자

세히 일러서 보내었다.

그 너인이 저자거리에 찾아가보니 거기에 신사임당이 말하던대로 여러가지 그림과 붓끝씨족자들이 주런이 걸려있는 가게방이 하나 있었다.

가게방안에는 주인인듯한 늙스그레한 경향이 랑건 바람으로 앉아있고 그와 마주하여 말쑥하게 옷차림을 한 젊은 선비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그 너인은 잠시 밖에서 망설이다가 가게방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그는 가게방주인앞에 포도송이를 그린 치마폭을 펼쳐 보이면서 찾아온 사연을 말하였다.

《저의 집 마님께서 이 그림을 팔아가고 오라기에...》

처음에는 의아한 눈길로 그 너인과 그림을 번갈아 바라보던 가게방주인의 얼굴에 차츰 놀라와하는 기색이 드러났다.

《호흡...》

그림을 찬찬히 뜯어보던 젊은 주인은 속으로 은근히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비록 거기에 락관(벌자의 서명)은 없으나 그것은 여느 환경이들이 돈벌이삼아 그려가지고 오는 속된 그림들에 비하면 동트게 뛰어난 그림이었던것이다.

필법이 이룬데없이 정교하였고 그림에서 풍기는 운치가 더없이 고상하고 은은하였다.

그러나 오랜 장사속으로 이골이 난 늙은 가게방주인은 조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집짓 심드렁한 표정을 지으면서 너인에게 물었다.

《그래 얼마에 파시려요?》

《그저 좋도록 쳐분해주시와요.》

너인은 입안의 소리로 간신히 대답하였다. 사실은 신사임당이 이 그림을 저자에 가지고나가면 아무리 못받아도 비단치마 한값같은 너근히 나올것이라고 하였지만 오히려 흥이 솟아나지 않았던것이다.

가게방주인은 처음부터 이게 무슨 목적이 있는 그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앞에 서있는것이 어수룩한 촌녀인것이기도 하여

아예 눈거리흥정으로 횡재를 해볼까 하는 마음이 동하기도 하였으나 그대도 그림그린 바랑천의 밀친값은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보아하니 사정이 급해서 가지고 나온 물건인것 같은데 그림은 그대 마음에 없었지만 그래도 내 집을 믿고 찾아온 건데 어찌했소. 내 생각해주겠으니 친한에 두어두고 가겠소?》 하고 좀 통명스럽게 말하였다.



그러자 너인이 미처 대꾸할 사이도 없이 옆에 앉았던 젊은 선비가 불쑥 한마디 끼어들었다.

《허, 주인장이 잘못 보는 것 같은데 내 보기엔 이 그림이 폐사 그림과는 다르구만. 대단히 훌륭한걸.》

그 선비로 말하면 이 가게방주인과 거레가 많은 단골손님으로 세에 대한 조예

가 깊었다.

마음 갈아서는 자기가 후하게 값을 치르고 그 그림을 사고싶었지만 가게방주인이 붙여놓은 흥정을 곁에서 가로채는것이 도리에 어긋날 것 같아서 이렇게 점잖게 돌려 말한것이었다.

《예, 그림은 풍사운데 재력을 알수 없는 그림이 돼서...》

주인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얼버무리면서

단골손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림이라는데 여느 물건과는 달리 일자를 잘 만나면 재값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자를 만나지 못하면 십년이 가도 팔리지 않는 까로운 것이어서 그림흥정이란 늘 두전판노름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너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하였다.

《나도 아주 경우없는 장사치는 아니고 또 여기에 점잖으신 윤참의 덕 서방님도 앉아가시는데 이 그림값을 후히 놓을레니 백냥에 두고 가시우.》

그러하여 그 너인은 생각지 않던 돈 백냥을 받아쥐고 가게방문을 나섰다. 그 너인은 그길로 비단천을 파는 판 가게에 들러서 붉은 치마 한값을 끊어가지고 돌아왔다.

그 너인은 사임당앞에 나머지 돈을 내놓으면서 이 고마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았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눈물이 글썽하여 진심으로 말하는것이였다.

신사임당은 너인이 내놓은 돈을 고스란히 돌려주면서 그것으로 나들이웃이라도 한벌 장만해드리라고 이르고는 그 너인을 데리고 마음가볍게 다시 잔치집으로 향하였다.

(끝)

품앗이와 소거리

소거리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공동노동적인 품앗이와 소거리를 무어 힘을 합쳐 서로 도우면서 일하였다.

《품앗이》

품앗이란 《품》 즉 로동력이라는 말과 지고 값는다는 뜻으로 쓰이는 《앗이》라는 말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이다.

품앗이를 다른 말로 《품바꿈》, 《품들이》라고도 하였는데 여기에는 다 로력을 서로 엇바꾸어가면서 품이 많이 드는 농사일을 해체간다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품앗이로 논밭갈기와 씨뿌리기, 모내기, 김매기로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농사의 모든 공정에서 공동로동을 할수 있었다.

소거리는 주로 논밭갈기와 씨뿌림때 부족되는 로력과 축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두마리의 소를 중심으로 무는 로동조직이였다.

여기서 《거리》는 《결》의 발음이 길어진 말로서 소를 맺는 말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이다.

소를 한마리씩 가지고있는 두집의 소를 쌍영에 매워서 일하였으며 때로는 소를 가진 두집과 소가 없는 몇집으로 무어 함께 일하기도 하였다.

품앗이와 소거리는 공동로동조직을 무어서 품을 많이 들어야 할 농사일을 공동로동으로 할수 있는 우리 선조들의 전통적인 미풍이였다.

본사기자

저혈압때 지켜야 할 사항

최고혈압이 100이하인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런 사람들중에는 병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증상은 주로 어지러움, 두통, 어깨아픔, 갑작스런 실신, 어지럼증, 캄캄 등이 있다.

혈압이 낮은 사람이 그것으로 하여 다른 병이 생기는 일은 적다.

그리고 약을 써도 잘 낫지 않는다.

그러므로 치료하려고 애를

쓰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생활상 주의하면 된다.

우선 큰 병으로 생각하면서 자리에 눕거나 일을 그만두지 말고 정상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며 아침체조, 일간체조 등을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

항상 기분을 좋게 하고 고된, 정신적긴장 등을 피하고 휴식을 정상적으로 하며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

본사기자